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 여정(32년)안에 학교 사도직 중에서 교육 행정업무를 18년, 본당 사도직 10년, 피정 사도직, 기초양성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마더씨튼영성 안에 "내 일상의 목표는 모든 사건을 온유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든 알력을 부드러움과 쾌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매일 새롭게 파견을 받으며 살아가는 김남숙 글라라 수녀입니다.



학교 첫 소임을 받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 인천교구로 초대받아 수녀회가 파견받으면서 소명여·종고로 행정실 소임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한 큰 부담감과 해낼 수 없다는 중압감에 수련장 수녀님께서 파견 면담을 하실 때 3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섭리 안에 순명하면서 첫 학교 사도직을 하게되어 지금까지 학교 교육행정과 법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지만 3남 2녀 장녀로 성장하면서 유쾌하시고 긍정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대면하는 사회성 안에서 소통하는 방법과 신뢰와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서 함께 기쁘게 하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기질은 여러 사람들과 어려운 교육행정을 진행하면서 관계 맺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소임을 하게 되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녀회에 입회하기 전 본당에서 사무장을 하면서 신부님,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접하면서, 사랑의씨튼수녀회를 소개받고 방문했을 때 우리 수녀님들의 환대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에 감화를 받아 씨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하하하!!!

우리 수녀회를 방문했을 때 현재 한국관구 본원의 로비 천정을 보면서 "수녀님들은 모두 착해서 직천당이구나,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녀회 지향이 저를 설레게 했고, 정말 잘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도 가끔은 저를 웃음짓게 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입니다. 소임을 통해서 저의 가난함을 많이 발견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마치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투신과 열정을 갖고, 소임하는 자리에서 오늘 지금, 행복을 쓰려고 합니다. 바로 저는 하느님 안의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녀님들!

저는 많은 사랑과 격려, 신뢰와 도움을 받아서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으로 수도 여정에서 아름다웠던 추억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수녀님들 마음자리 안에 제가 보답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좋으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대신 각 분에게 축복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이 있지만 마음을 표현하기엔 부족할 뿐입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공동체 수녀님들, 하느님께 그리고 많은 사도직을 동반했던 좋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My name is Sr Clara Nam-Sook Kim. Throughout my religious journey of 32 years, I have work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education ministry for 18 years and the parish ministry for ten years. In the course of doing all these ministries, including retreat ministry and initial formation, I strived to live in the Lord with the mind of being newly missioned, bearing the words, "My daily objective is to confront all conflicts with softness and cheerfulness and to accept all issues with mildness and calmness," in line with the spirituality of Mother Seton.



I clearly remember when I was assigned to a school for the first time. I felt a great burden and heavy pressure for my assignment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So-Myoung Middle and High School for girls. So, I appealed with my refusal three times to the Novice Director. Eventually, I obeyed in providence and took charge of the school's administration and corporation work. It was not an easy task for me. Nevertheless, it seems that active communication and patience through trust and charity enable me to make people happy. My cheerful father and mother, who demonstrated their devoted love and generosity as I grew up as the first daughter among three sons and two daughters, might have formed such a positive attitude. Such character seems a great strength that helps me carry out a role as a middle manager in keeping my relationship with various peopl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Before entering the congregation, I worked as an office manager of a parish. At that time, I witnessed an evangelical life and the holy love of a parish priest and sisters, who introduced me to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 was influenced by the hospitality of sisters and their respecting people and loving each other when I visited the congregation. So I entered into our Sisters of Seton Hill. I acknowledge such as a call of God.

Looking at the ceiling in the lobby of the provincial house when I first visited our congregation, I thought, "Our sisters could go directly to heaven in light of their goodness as heaven reaches earth." Our congregation's vision excited me, so I started to learn religious life, considering that I had made a good decision. These precious memories make me smile still nowadays. I confess that the past was a gracious moment to realize my poverty through my duties. Since we can not remain here forever, I am willing to write the happiness as of now at the place I am working with commitment and passion.



My loving sisters!

I appreciate as much as heaven for the love, encouragement, trust, and help from many people around me. I, who have a deficiency, am grateful for the beautiful memory and love I received during my religious journey. May God, who is good and merciful, bless each sister who showed her love to me that I could not repay. It is always insufficient for me to express my heart, even though there are many things to appreciate in the world. I am very grateful to God, our sisters of the community, and companions who performed together many ministries from deep inside my heart. I love you all.